사 설

'자비의 죽비' 보내기

조계종 전국신도회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자비의 죽비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전국신도회가 이 운동을 계획한 것은 우리의 교육현장이 무관심과 삭막함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현실을 치유해 보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들린다.

소위 사랑의 매라 불렸던 체벌이 폭력시비에 휘말리면서 급기야는 체벌을 당한 제자나 그의 부모가 스승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보니, 체벌을 가해서라도 내 제자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겠다는 선생님들의 애정과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학생들의 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무관심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

순수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가해지는 체벌마저 폭력으로 규정하려는 현실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때의 회초리마저 들지 못하고 만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점을 고려하여 폭력시비를 불어오지 않고 학생들을 경책할 수 있는 도구로 법구의 하나인 죽비를 생각하게 된 것같다.

예로부터 선원에서는 입선과 방선의 신호로 죽비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좌선 중에 자세를 교정하거나 졸음에 빠지는 이를 경책할 때 주로 죽비를 사용해 왔다. 그러니까 죽비는 스승과 제자간에 인격을 도야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훌륭한 수행도구였던 것이다.

사실 죽비로 상대방을 때릴 때는 죽비가 직접적으로 가하는 아픔보다는 그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질책할 때 죽비를 사용한다면 그 효과가 크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죽비 보내기 운동의 일차대상은 종립학교라고 하며 점차 전국의 교사불자연합회 회원 교사들에게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운동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선 학교에서 죽비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가는데는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마련인데,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을 가지고서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 것이다.

죽비 보내기 운동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뿐 아니라 황폐화된 우리의 교육현장을 자비의 도량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 따라서 불교의 포교차원에서도 이 운동은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므로 불자들의 동참이 요구되는 바다.

1구좌 동참금이 1만원이라고 하니 뜻있는 불자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동참이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전국의 각 사찰에서도 자칫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기 쉬운 방생행사를 지양하고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자비의 죽비보내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전국신도회는 1만개 죽비보내기를 계획하고 있으나 전국의 초·중·고 교사 36만여명에게 고루 죽비를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조계종 신도회 차원에서만 이 운동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전체 불교적 차원에서 확대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죽비는 어린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접하게 될 법기이니 보급에 앞서 크기나 모양을 예쁘게 디자인하여 통일하고 부처님 말씀 한 마디라도 새겨 넣을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

국어사전 불교용어 오류투성

조계종 문화부 257항목 지적
"불교용어위원회 구성 바로 잡아야"

국어사전에 수록 풀이된 불교용어가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총무원 사회부(부장 양산)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동아 교학사 금성 민중 등 유명출판사에서 펴낸 6종의 국어사전과 2종의 불교사전을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불교용어를 잘못 풀이했거나 풀이 나 용이 빈약한 단어가 257개 항목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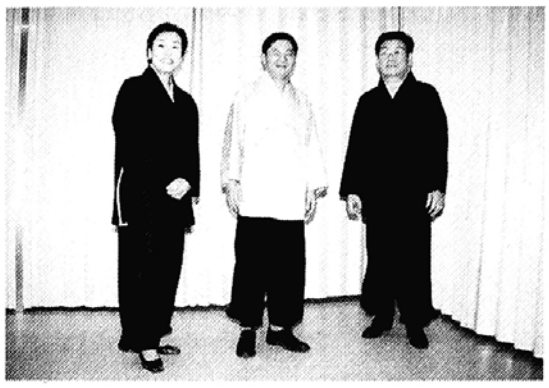
오류로 지적된 여 가운데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를 '불교에서 사람의 인생이 허무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 불교 사상을 왜곡한 경우도 있다. 또 계를 받는 '수계(受戒)'를 스님들만으로 한정해 풀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불교용어집의 발행과 보급이 과제로 제기됐다. 이를 위해 가칭 불교용어위원회를 구성, 잘못 풀이한 불교용어의 바른 풀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국어사전은 교과서와 같이 언어 및 문자생활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국어사전의 오류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조사대상에서 교리 용어와 지명 등 고유명사를 제외했으므로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바른 서술의 예를 작성해 각 출판사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연구원과 동아출판사 국어사전편찬실 관계자는 "검색 결과를 알려주면 개정판을 펴낼 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출판사는 '새 국어사전' 개정판을 내년 중 발행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포교사단 단복 품평회

조계종 포교사단(총재 정련·포교원장)은 15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단복 품평회를 가졌다. 포교사단은 19일부터 진행되는 서울·경기지역 포교사 전문화교육부터 한달간 포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단복 디자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불교도농공동체운동본부 부설 의생활연구소(실장 강선정) '물푸레'팀이 만든 포교사단 단복 시안은 감색 및 회색의 생활 한복 형태로 편안한 인상을 주면서도 활동성을 갖추고 있다. 천공장과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마진을 없애 가격은 12~15만원 정도로 저렴하며 반맞춤 형태로 제작된다. 이 단복은 포교사단이 실시중인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포교사들만이 입을 수 있다. 김재경 기자

불교관광상품
조계사·봉은사 첫선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불교체험을 소재로 한 '불교관광상품'을 개발,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첫 선을 보이기로 했다.

조계사에서 주관하는 한국불교체험 프로그램은 22일부터 매주 화·목·토요일 오전 10~12시 진행된다. 한국불교사찰 소개, 참선 및 다도체험, 스님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서울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시내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불교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봉은사도 7월2일부터 매주 수·금·일요일 오전 10~12시 조계사와 동일한 외국인대상 불교 참선 및 다도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사미니 기초선원 내년 봄 개원
조계종 교육원…동화사 부도암·양진암에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동화사 산내암자인 부도암과 양진암에 사미니 기초선원을 내년 봄에 개원할 예정이다.

교육원과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는 11일 교육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미니 기초선원 개원에 합의, 사미니 기초선원 운영주체를 전국비구니회에 위임, 기초선원 운영에 따른 교선사, 선감 및 원생의 직접적인 관리를 전국비구니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 60여명이 탈락, 사미니 기본교육을 종단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안성 법계사에 지방승가대학을 신설하고 청암사를 증설(30여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국내 최초의 비구니 스님 율원인 수원 봉녀사 금강율원(율원장 묘엄)이 21일 오후1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인터뷰 4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지방승가대 교육부 인가 추진
조계종 승가대 평가… 승가 교육환경 개선안 마련키로

조계종 교육원은 15일 전국 지방승가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종단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각 승가대학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원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 공청회를 거쳐 지방승가대 발전 방향과 교육환경 개선 과제 등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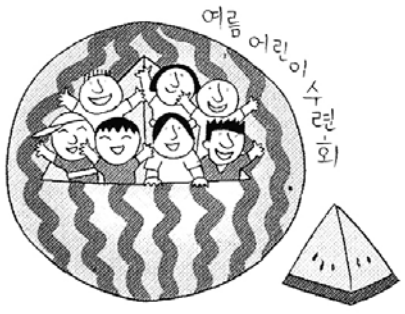
교육원은 또 지방승가대 운영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각 대학별로 교과목과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논문을 공모하기로 하고 한 편당 50만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원은 이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승가대 및 학림, 승가대학원의 교육부로부터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학제 인정(지방승가대 학점은행제 등 강구)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원은 지방승가대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기중 학인들의 전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한정된 지방승가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총학인 30명 미만의 승가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교구본사가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지방승가대학의 체계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전통 강원의 장점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성급한 교육부 인가 교육기관으로의 변신은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재경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알찬 배움터

"큰문중 위주 원로의원 지양"
조계종 원로의장단 간담회서 제기
7월초 원로회의 '연령제한' 논의키로

16일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 부의장 도원스님, 총무원장 고산스님, 포교원장 정련스님, 종회의장 법등스님, 호계원장 월서스님이 참석한 간담회. 원로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도원스님이 먼저 "종단내에서 영향력있는 문중의 어른들만 원로의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원로회의가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인데도 원로의원들의 의사보다는 모시는 스님의 의사에 좌우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총무원이 요청해 회의를 열기보다는 회기를 정기화해 종단 상황도 보고받고 건의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로회의의 권위회복론도 제기됐다.

지난 해 조계종사태 때 원로회의를 소집해 원로들의 의견을 모았으면 원로들까지 분열되는 양상은 막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한편 원로의원 연령 상·하한선 조정에 대해서는 7월초 원로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총무원 청사 신축
조계종 29일 공청회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불교회관1층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청사 신축 및 조계사 도량정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는 총무원이 주최하고 한국박물관건축학회(회장 서상우 국민대 건축과교수)와 한국건축역사학회(회장 박언곤 홍익대 건축과교수) 공동주관으로 열린다. 정성운 기자

대의원총회 소집
중앙신도회 17일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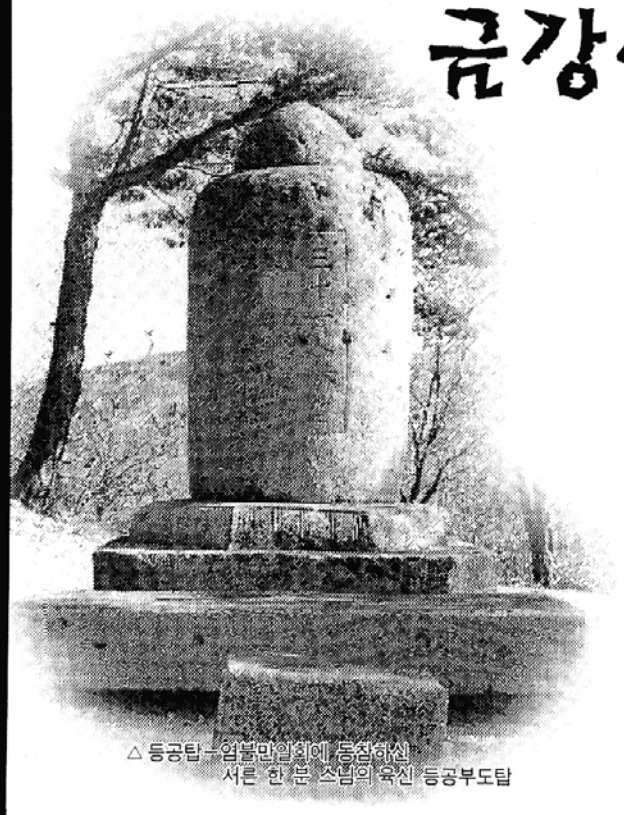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7일 교계 신문에 대의원총회 소집 및 임원선거를 공고했다. 회장 등 임원선거 일정은 △7월 9~13일 선거인 명부작성 △7월20일 선거인명부 확정 △7월 21~24일 추천서 교부 △8월 3~5일 후보자 등록 신청 및 후보자 연석회의 △8월12일 홍보인쇄물 발송 △8월20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장 및 임원 선거 등이다.

김재경 기자

나라가 어려울때(國難) 불교전통(佛敎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금강산 건봉사 여름 성지대회 공고


△ 등공탑-염불만일회에 동참하신 서른 한 분 스님의 육신 등공부도탑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99년도 여름 아미타 염불성지대회를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1999년 8월 2일 ~ 4일(2박3일)
◇ 장 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 건봉사
◇ 내 용 : 본행사 및 염불보살계 수계식(수계희망자는 별도 신청바람)
◇ 신청대상 : 개인, 단체, 사찰, 가족단위
◇ 참 가 비 : 3만원
◇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은행계좌에 입금
◇ 교 통 편 : 개인별 건봉사 도착

서울·경기지역 출발 안내
○ 출발장소 : 서울 조계사 앞(안국동 로터리)
○ 출발시간 : 1999년 8월 2일 오전 9시
○ 교 통 편 : 관광버스(단, 동참자는 참가비·교통비 포함 55,000원을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모집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 분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회원회비 : 가입비 1만원(매년회비 1만원)
▶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7)

회원이 되시면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염불일일기도 수첩 보내드림)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 법보신문에 매주 고유번호와 성명이 게재됩니다.

회원가입 은행 입금계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023-21-0667-309 조흥은행:390-04-249351
농 협:053-02-128104 우 체 국:010041-0384727
외 환:173-18-10454-9

全國念佛萬日會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02)732-1215~7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